

6, 7월 인성교육 자료

(매주 월요일 아침 시간 활용)

6.7일

‘06.05 세계 환경의 날’

‘World Environment Day’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제정되었고, 그 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국제 사회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 첫 번째 국제회의였으며, 유엔 산하에 환경 전문 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했으며, 1997년에는 서울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주최의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법

환경경제신문 그린 포스트 코리아 신문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제목: 거주 불능의 지구, 우리는 어디로 떠나야 하나요?(2021.05.04.)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갓 서른이 된 기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미세먼지나 기후 위기, 기후변화와 같은 말은 흔치 않았다. "헤어스프레이에서 나오는 프레온 가스가 지구 오존층을 뚫어 지구는 점점 더워질 것이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북극곰이 살 자리가 없어진다." 처럼 먼 얘기로 다가왔다.

약 20년이 지난 지금, 기후변화는 현실이 됐다. 실제로 빙하가 녹는 속도가 두 배나 빨라져 연간 2670톤의 빙하가 녹고 있다. 녹은 빙하는 해수면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해발 고도가 낮은 섬나라들은 물에 점차 잠겨나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후변화에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어른보다 어린이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 지구에게는 0.5℃도 가혹하다

자연은 지난 1만 년 동안 지구를 4℃ 상승시킨 반면,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불과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를 1℃ 올렸다. 자연이 스스로 일어나는 변화보다 25배나 빠른 속도다. 사람도 체온이 1℃만 올라도 열이 나고 아픈 상태인데, 지구에는 더욱 가혹하다. 여기서 0.5℃만 더 올라도 지구의 회복력은 상실한다.

자세히 말하자면, 지구 온도가 0.5℃만 올라도 곤충의 12%, 식물의 8%, 척추동물의 4%가 멸종한다. 푸른바다거북은 알에서 부화할 때 동지의 온도에 따라 새끼의 성이 달라지는데, 30도 이상에서는 암컷만이 태어난다.

실제로 호주 퀸즐랜드 환경유산보호부 공동연구팀이 푸른바다거북 개체 성비를 조사해본 결과 암컷 비율이 99%가 넘었다. 이 같은 암수 불균형으로 푸른바다거북은 사라지게 된다.

푸른바다거북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지구온난화에 민감하다.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 병원체가 살아남은 동물에게로 농축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동물들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까지 내려오게 된다.

결국 병원체-동물, 동물-사람 간 접촉이 잦아지면서, 감염병이 퍼져 나간다. 실제로 새로운 병원체의 약 60%가 이런 방식으로 탄생한다. 2009년 인플루엔자도 철새들의 이동으로부터, 돼지, 사람에게까지 전파됐다. 아직 기원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역시 이렇게 인간에게까지 닿은 걸지도 모른다.

◇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자는 '어린이'

우리는 늘 말한다. 자연재해는 지구가 살려달라는 마지막 '외침'이라고. 실제로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는 7438개의 재해가 발생했고, 이 중 홍수가 44%, 태풍이 28%, 지진이 8% 등을 차지했다.

이 같은 재해로 123만 명이 사망했고, 3400조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결국 자연재해의 가장 큰 원인도 기후변화로 나타났다.

단순히 지구 생태계의 이야기라면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대규모 홍수·태풍·지진으로 많은 어린이가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고 있다.

일부 기업이 개발로 막대한 부와 명예를 얻었고, 이를 방관한 정부. 그리고 어른들이 환경을 외면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는 동안 아이들은 자연재해로 학교와 집이 무너져 공부할 곳도, 생활할 곳도 없었다.

우리가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재앙 직전의 지구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 미래 세대 살아갈 시간...어른들은 뭘 해야할까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말한다. “기후 위기를 행동으로 보여달라”라고. 우리는 과연 기후 위기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을까? 지금 어린이, 청소년 시기를 겪고 있는 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거주 불능의 지구'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2050년이 약 30년 남은 지금, 결국 다음 세대의 미래가 아닌 우리 세대의 미래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수차례 언급한 기후 위기. 하지만 전문가들마저도 집단적 무기력함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우리는 당장의 편안한 삶을 누리고자 기후 위기를 알면서도 외면해왔을지 모른다.

어른으로서 "제발 멈춰달라"는 호소에 미숙함을 논하기보다는, 절박하게 온전한 미래를 요구하는 어린이의 시선이 필요한 때다.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

6.14일

계기 교육

세계 헌혈자의 날

국제적십자사연맹과 세계보건기구, 국제헌혈자조직연맹 등 국제 헌혈 관련 기관들이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제정한 날로, ABO식 혈액형을 발견한 카를 란트슈타이너 박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이날엔 세계 각국에서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실시합니다.

헌혈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1) 약을 만들 때 필요한 혈액이 모자라요.

우리가 헌혈한 혈액의 65.4%는 수혈용, 34.6%는 의약품 제조용으로 쓰여요. 의약품 제조용에 필요한 혈액은 헌혈로는 충당되지 않아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요. 2013년에 35만 ℓ, 2014년에 12만 ℓ를 수입했어요. 혈액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평균 300만 명의 헌혈자가 필요해요. 현재 우리나라 연간 평균 헌혈자가 280만 명이니, 좀 더 분발해야겠지요?

2) 혈액은 오래 보관할 수 없어요.

헌혈한 혈액을 얼렸다가 필요할 때 전자레인지에 넣고 녹여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쉽게도 혈액은 오래 보관할 수 없답니다. 농축적혈구는 35일, 혈소판은 5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적절한 혈액의 양은 5일 치. 5일 치를 꾸준히 유지하려면 헌혈자의 지속적인 헌혈이 필요해요.

3) 혈액은 만들어 낼 수 없어요.

인공지능 알파고가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과 겨뤄 이기는 세상이라지만, 아직 혈액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는 기술은 없어요. 혈액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반드시 혈액을 주어야 해요.

4) 언젠가는 나도 혈액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12,684개의 혈액이 사용되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혈을 기다리지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기계를 만지다가 다치고, 이식 수술을 받고... 헌혈자들이 없다면 이 환자들은 이미 우리 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우리와 우리의 가족도 수혈이 필요한 때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수혈을 받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잠시 팔을 걷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죠?

헌혈 상식

수혈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혈액형이에요. 혈액형이 서로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하면, 적혈구가 파괴돼요. 적혈구가 파괴되면, 적혈구가 담당하고 있던 '산소 운반' 기능이 멈추어서 결국 죽게 되지요. 그러니 반드시 혈액형이 같은 사람끼리 수혈해야 해요. 재미있게도, O형은 다른 혈액형에게 혈액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AB형은 모든 혈액형으로부터 혈액을 받을 수 있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혈액 확보 비상에서 발췌

세계 난민

한겨레 신문 발췌

식량부족 340만명, 난민 25만명... 혼돈의 미얀마(2021.04.23.)

지난 2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혼란이 지속되는 미얀마가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22일(현지시각) 미얀마 시민 340만명 이상이 향후 6개월 안에 굶주림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미얀마 전체 인구(5480만명)의 약 6%에 해당한다. 세계식량계획은 기존 빈곤과 코로나19 사태, 현재의 정치적 위기 등 ‘삼중고’로 인해 굶주림 사태가 미얀마 전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도시 지역이 더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앤더슨 세계식량계획 미얀마 지부 책임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으면서 식량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과 그 주변에서는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 것이 부실한 상태로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가족들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전역에서 쌀값이 1월 이후 평균 5% 올랐고, 식용유 가격도 2월 이후 18% 올랐다고 전했다. 세계은행은 지난달 말 올해 미얀마 경제가 10%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얀마 언론 <이라와디>는 노동조합을 인용해, 쿠데타 이후 20만명이 넘는 의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베네통과 스웨덴 에이치엔엠(H&M) 등 해외 의류 업체들이 신규 주문을 중단한 탓이다. 한국 산업단지와 일본이 지원하는 인프라 사업 등도 중단되면서 약 30만~40만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미얀마 군부의 폭력으로 약 25만명의 미얀마인들이 난민 신세에 처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21일 소셜미디어에 “소식통들에 따르면, 군부 공격으로 최소 737명이 숨지고 3200명 이상 체포된 것 외에도 거의 25만명 가까운 미얀마 국민이 난민 신세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소름이 끼친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는 이 인도주의적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앤드루스 특별보고관이 거론한 25만 명은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 대한 미얀마군의 공습으로 발생한 난민 외에 미얀마군의 유혈 탄압과 각종 제한 조치로 미얀마 각 지역에서 집을 떠나거나 생계에 타격을 입은 국민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난민이란?: 고국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해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전쟁, 천재지변, 사성적 원인을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 유엔 난민 기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만 해도 2,100만명에 달하고, 고국을 떠나지 못했지만, 태어난 나라에서 유엔 난민 기구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들도 많다. 전 세계 인구 1%인 7,700만 명 가량이 난민 상태에 놓여 있다.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 내용 발췌

6.28일

오늘의 주제: 노력

노력과 관련된 영어 명언 소개

“Respect your efforts, respect yourself. Self-respect leads to self-discipline. When you have both firmly under your belt, that's real power.” -Clint Eastwood(미국의 영화배우 겸 감독)

“당신의 노력을 존중하라. 당신 자신을 존중하라. 자존감은 자제력을 낳는다. 이 둘을 모두 겸비하면, 진정한 힘을 갖게 된다.”-클린트 이스트우드

“Try not to become a man of success but rather try to become a man of value.”-Albert Einstein(독일의 이론 물리학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라.”-알버트 아인슈타인

여름철 주의해야 할 감염 질환

7.05일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비브리오패혈증, 캄필로박터,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등의 병원균 증식에 적합한 환경이라 이러한 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 감염병에 걸리기 쉽다.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주의해야 할 감염질환 및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비브리오 패혈증

해수에 사는 균으로 어패류를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바닷물과 접촉하면서 발생한다. 간질환, 당뇨병, 알콜중독 환자는 여름철에 어패류 섭취를 금하는 것이 좋다. 1~2일 잠복기를 거친 후 하지 통증을 동반한 설사, 복통, 구토 증상이 나타난다.

▲ 예방법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을 삼가야 하며, 어패류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해야 하며, 85도 이상 가열하여 익혀 먹어야 한다. 어패류를 다룰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 만성 간질환, 당뇨병, 알콜중독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레지오넬라증

여름 감기로 오해하기 쉬우며,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 물에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에어컨, 샤워기, 수도꼭지, 가습기, 목욕탕, 찜질방 등의 레지오넬라균을 함유한 물방울이나 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다. 기침과 목이 아프며, 고열, 설사, 의식혼란, 가슴통증, 폐렴증 등을 동반한다.

▲ 예방법 : 2주일에 한 번 정도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고, 하루 최소한 3~4시간 마다 한 번씩 창문을 여는 등 환기를 자주해 실내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의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고 실내 청소를 하여 세균이나 곰팡이

증식을 막아 실내 공기를 맑게 유지해야 한다. 대형건물의 냉각탑 및 저수탱크도 청소, 소독을 잘 해야 한다.

콜레라

콜레라 환자의 토물이나 대변에 오염된 식수나 음식을 먹거나 해산물을 날로 먹었을 때 주로 감염된다. 잠복기는 보통 2~3일이며, 최장 5일간이다. 심한 설사를 하는 감염병으로 노약자의 경우에는 사망하기도 하며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노약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갑작스런 설사로 시작되어, 구토, 탈수, 허탈증에 빠지며 열은 없고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기도 한다.

▲ 예방법 : 물과 음식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하며, 우유 또는 유제품은 멸균하여 섭취해야 한다. 해수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될 경우에는 날 생선을 먹지 말아야 한다.

살모넬라균

사람, 가축, 가금, 개, 고양이, 기타 애완동물, 가축·가금류의 식육 및 가금류의 알, 하수와 하천수 등 자연환경 등에 균이 존재하며, 보균자의 손, 발 등 2차 오염에 의한 오염식품을 섭취할 때에도 감염이 될 수 있다. 주요 증상은 발열, 두통, 복통, 구토, 설사 등이 있다.

▲ 예방법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어야 하며, 음식은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셔야 한다. 조리도구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하지 않아야 한다.

세균성이질

시겔라균에 감염된 상태로 환자 또는 보균자가 배출한 대변을 통해 구강으로 감염되며, 매우 적은 양의 세균도 감염을 일으킨다. 발열, 구역, 복통, 때로는 독소혈증, 구토, 후증(잔변감)을 동반하는 설사가 주요한 증상이다. 특히 면역이 약한 10세 미만의 소아가 많이 걸리니 주의해야 한다.

▲ 예방법 : 손의 위생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아이들의 대변을 치운 후나 음식 조리 전과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노로바이러스

생선, 조개, 굴 같은 수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거나 감염자의 대변이나 구토물에 의해 음식이나 물이 바이러스에 오염되면서 전파된다. 감염 후 1~2일 후에 메스꺼움, 구토, 설사 증상이 발생

하며, 심하면 발열, 오한, 근육통을 동반한다.

▲ 예방법 : 손을 자주 씻고, 음식은 섭씨 85도 이상의 온도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채소와 과일도 흐르는 물에 씻어서 되도록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 좋다. 요리하는 동안 썼던 칼과 도마는 깨끗이 씻거나 소독해 보관하고, 생선과 고기, 채소는 용도별로 분리해서 보관, 사용해야 한다. 실내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도 노로바이러스 전염 방지에 도움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오늘의 주제: 공부

공부와 관련된 영어 명언 소개

7.12일

“Education has for its object the formation of character.”-Herbert Spencer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형성이다.”-하버트 스펜서

“Liberty without learning is always in peril; learning without liberty is always in vain”-John F. Kennedy(미국의 35대 대통령)

“배움이 없는 자유는 언제나 위험하며 자유가 없는 배움은 언제나 헛된 일입니다.”-존 F. 케네디